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 한인회보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34

John K. Oh - Publisher  
Pupshin Park - Editor  
(206) 362-4500

## APRIL, 85

### 권두언

1885년 에 맺은 한미수호 조약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는 물론 오늘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며 오늘의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 나가는 우방국으로서 동등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있다. 이 지역만 해도 동포의 수만도 40,000 을 헤아리며, 전미 주에는 800,000 이라고 한다. 이 숫자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많은 동포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에 진출하여 이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미국이 보는 한국은 인기 어려운 경제 비율로 급성장하는 개발도상국의 일원으로써 일본의 발전초기 보다 3배를 능가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 전망하기도한다. 특히 이곳 지역에서는 한국이 Pacific Rim Country 의 하나로써 이 지역의 산물을 어느나라 보다 많이 수출할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며 지금 현재도 3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다. 이것은 조국의 국력신장과 해외 동포들의 꾸준히 쌓아온 인내와 슬기로 이룩되었다고 보며, 이제는 허리를 펴고 국제 대열에 서서 선진대열과 어깨를 겨누고 살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금번 4번째로 맞이하는 5월 25일의 한국의 날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목격하는 한국과 이곳 동포에 대한 Image 를 향상하는일, 서로간에 긴밀한 협조로써 융화 단결을 모색하는 일, 서로간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등의 교류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하여 금번에도 이곳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의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서로간의 폭 넓은 대화로서 국가대 국가, 사회대 사회, 개인대 개인 으로서 공통점을 추구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보람된 대화의 광장이 되었으면 하는것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행사는 단순한 연회가 아니요 오직 위에서 서술한 점을 기억하고 참석하는 준비 태세를 갖고 임하여야 할것이며, 금번에 새로 당선된 주지사(Booth Gardner)께서 공포하신 한국의 날 선언문을 음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것이다. 주지사의 한국의 날 선포를 계기로 하여 썬아틀 시장(Charles Royer), 킹 카운티 군수(Randy Ravelle)도 같이 선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성공, 지위향상, 우리동포와 우리나라에 대한 Image 향상,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때 앞으로 차라는 2세들에게 무엇을 값있게 나누워 줄수 있는것이다. 그 무엇이탄것이 2세를 위한 발판이요, 활력소요, 자부심이 될수있어 세계 어느민족과도 어깨를 겨누고 살아갈수 있는 큰 힘이 될것이다.

금번의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기하여 워싱턴주 청사를 비롯하여 썬아틀, 킹카운티등 여러청사에 높이 태국기가 게양될것이며, 앞으로 이 날만이 아니고 계속 쉬지않고 게양 될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한인회장 오 준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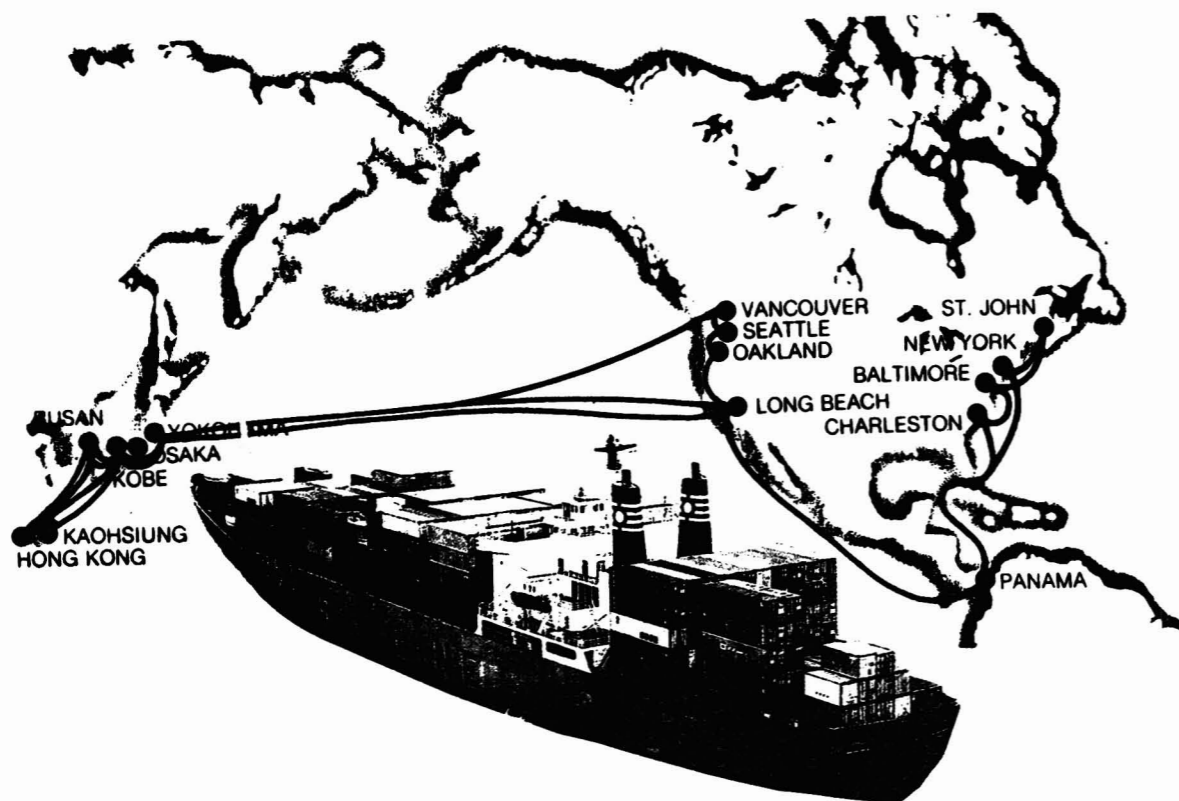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3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 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1520 Seattle WA 98121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롱비치 지점 (213) 437-0431  
 뉴욕 지점 (212) 422-5958  
 샌프란시스코지점 (415) 777-2600  
 시카고 지점 (312) 693-7500  
 휴스턴 지점 (713) 227-3261



## 한인 사회와 교회

시애틀 한인연합 장로교회  
 목사 박영희

과거 20년은 한인들이 미국에 많이 이민은 기간이다. 미국내 80만 교포를 헤아리게 되니 어느 지역에 가도 한인이 없는곳이 거의 없다. 소수민족에 따라 발전하는데 특색이 하나씩 있다. 중국인은 모이면 식당을하고 일본인은 회사를 만들고 한인들은 교회를 설립한다.

한국선교 100년을 맞이하여 기독교인수는 850만에 달했고 총인구에 20%에 이르렀다. 미국내 각도시 심지어 농촌에가도 50여명의 한인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 교회는 한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고독과 향수를 달래고 위로와 사랑과 협력을 하고 생활 정보를 얻어 보다 나은 생활로 향상하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곳이다. 따라서 미국내 한인교인수는 70%에 달한다고 한다. 한인들은 종교적인 민족이다. 옛날부터 종교적 생활을 좋아하고 거기서 도덕, 윤리적 생활을 해 왔다.

씨아들에도 교회는 30여개가 있고 만나는 교민들은 거의 어떤교회에 적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보면 한인사회와 교회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 한인들이 있는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곳에 한인들이 모인다. 한인교회는 계속발전하고 있다. 자체 건물도 마련하고 있고 구성인원도 증가하고 대내, 대외, 사회봉사, 노인복지, 한글교육사업 등을 활발히 하고있다. 교회는 앞으로 더욱발전할 전망이 크다. 이제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될문제가 있다. 한인사회단체, 기업체, 종교단체를 총 망라한 한인사회의 유기적인 연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어떤때는 본의 아닌 한인에 대한 외부의 차별대우를 받거나편견적인 언사를 받을때가 있다. 이럴때 전 한인의 이름으로 나아가 대변하고 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씨울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이 "한인회"

다. 씨아들 한인회는 주정부와 시 당국에 교섭하여 한인의 날을 만들어 태극기를 주청사와 시청에 게양하고 한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다고 말하여 한인복지 사업을 직접 간접 돕고있다. 이 한인회에서 일하고 있는 임원들은 대부분이 교인들이고 순전한 봉사를 하고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좀더 넓은 시야를 갖고 전반적인 한인사회를 위한 일에 협력해야 하겠다. 우리의 생활은 공동체이고 모두 연관을 갖고있다. "네가 잘살아야 내가 잘 살고 내가 잘돼야너도 잘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인을 아끼지 아니하면 외국인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한다.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인경영 기업체를 육성하도록 서로 도와야 하겠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충고하고 격려해서 육성하자 서로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참고 이해하고 화목하자. 우리 한인들의 얼굴이요 대표기관인 한인회에 적극참여하자. 기독교인들은 한인사회 위해서도 출선봉사를 하여 그리스도의 박애정신을 나타내야 하겠다.

이것이 한인사회의 발전의 길이요, 또한 우리 교회의 발전의 길이요.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손만대 잘사는 길이라 생각한다.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 “한국의 날” 행사안내

### 한국의 날 행사 안내

시애틀 한인회 주최로 넷번째 워싱턴주 “한국의 날” 행사를 기하여 한·미 간의 전통적 우의를 되새기고 양국간 지도급 인사들을 한자리에 초청할수 있게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이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교를 쌓고, 상호 협조의 공동이익을 달성할수 있기를 바라며, 많이 참석하여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애틀 워싱턴주한인회

회장 오 준 철



### PROCLAMATION

Whereas, there is a growing friendship between the people of Korea and the people of Washington State; and

Whereas,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Washington State has grown to more than 40,000 persons; and

Whereas, the Koreans and Washingtonians have shared more than 100 years of common dedication to the principles of peace and freedom; and

Whereas, sister government relationships flourish between the ports of Seattle and Pusan, between Tacoma and Kunsan, and between Masan and Olympia; and

Whereas, King County and Hwasung County are in the final stages of negotiations for a county relationship; and

Whereas, the culture, education and commercial benefits that accrue to both Korea and Washington as a result of their friendship are significant and lasting; NOW, THEREFORE

I, Booth Gardner, governor of the state of Washington do hereby proclaim Saturday, May 25, 1985 KOREA DAY in Washington State and I invite all citizens to join in its observation.

April 16, 1985  
Booth Gardner  
Governor

### 부스 가드너 주지사의 “한국의 날” 선포문 (전문)

- \* 한국국민들과 워싱턴주민들은 우호를 증진하고 있으며
- \* 워싱턴내의 한국교민 사회는 40,000의 교포로 늘어나고 있으며
- \* 한국국민과 워싱턴주민들은 언 100여년 이상을 자유와 평화의 원칙을 위하여 공동으로 헌신과 노력을 기우리고 있으며
- \* 자매도시 관계도 세애틀항과 부산항, 타코마시와 군산시, 그리고 마산항과 올림피아항등으로 널리 번져가고 있으며
- \* 킹 카운티와 화성군은 자매관계를 맺는일에도 마즈막 협상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 \* 양국간의 우호로 한국과 워싱턴주에 미치는 문화적이고, 교육적이고 그리고 상업적인 유익은 괄목하고 영구하므로

이에 본인 주지사 부스 가드너는 1985년 5월 25일 토요일을 워싱턴주의 “한국의 날”로 선포하고,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 날을 지켜주도록 권유한다.

1985년 4월 16일

주지사 부스 가드너

## 한국의 밤 KOREA NIGHT BANQUET

- 일시 : 1985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RED LION INN/SEA-TAC  
18740 PACIFIC HWY S.  
SEATTLE, WASHINGTON

- 입장권 : 일인당 \$ 20.00

- 입장권판매 : 한인회사무소 및  
이사 임원

류 종합보험  
ALL STATE

364 ~ 2450 ( B )

362 ~ 2510 ( H )

### 프 로 그 램 PROGRAM

- |       |    |   |
|-------|----|---|
| I 부   | 1. | 사교시간<br>SOCIAL HOUR   |
|       | 2. | 만찬<br>DINNER  |
|       | 3. | 귀빈소개 및 인사의 말<br>INTRODUCTION OF GUESTS<br>OF HONOR & BRIEF SPEECH |
| II 부  | 4. | 고전무용<br>KOREAN CLASSICAL DANCE                                    |
|       | 5. | 한국민요<br>KOREAN FOLK MUSIC   |
|       | 6. | 가곡<br>KOREAN LYRIC SONGS  |
|       | 7. | 어린이 합창<br>CHILDREN'S CHORAL                                       |
| III 부 | 8. | 춤과 음악<br>DANCING & MUSIC  |

## 씨애틀 워싱턴주 청소년 캠프 안내

한인회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 청소년 캠프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오니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참여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Ferry 로 Whidby 섬에 도착하여 시원한 바다 아름다운 숲, 잔디운동장, 깨끗한 기숙사, 좋은식당수영장, 실내체육관등이 갖추어진 Camp Casey 에서 이번 캠프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다르더라도 같은 민족 동일한 언어, 같은 문화를 지닌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고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이 Camp 를 통하여 정신적, 사회적훈련으로 보다 훌륭한 청소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내일의 주인공이 될 중·고생 여러분을 청소년 Camp 로 초대하면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인회장 오 준 결  
청년부장 윤 흥 남

- ① 주 제 : Vision 을 갖자  
② 프로그램 : 위 주제를 중심으로한 강의, 오락, 영화상영, 경기, 수영등 다양한 활동

- ③ 일 시 : 1985년 6월 19일(수)  
6월 21일(금)  
(2박3일)

- ④ 장 소 : Camp Casey  
1) Whidby 섬에 소재하며 씨애틀에서 약 2시간 요하는 거리의 해변가에 있음.  
2) Shower, 좋은음식, 침실활동실이 구비된 120명 수용의 기숙사가 있음

- ⑤ 참가비용 : 1인당 \$ 40.00  
1) 숙박비, 식비, 교통비, 수영장사용비, 사진대(단체사진)포함  
2) School Bus 제공  
3) 간식제공

- ⑥ 참가범위 : 1) 중·고등학교 학생 (7~12)  
2) 120명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제한함.

⑦ 신청요령 : 한인회 소정양식에 의하여 우편으로 신청 또는 직접 방문접수

⑧ 신청마감일 : 1985년 6월 8일 까지

### Camp 예산

#### ●수 입

회비 40 x 100명 = 4,000  
보조금 3,000  
계 7,000

#### ●지 출

기숙사비 20 x 100 = 2,000.00  
식사비 25 x 100 = 2,500.00  
교통비 1.50 x 100 = 150.00  
School Bus 3 x 250 = 750.00  
광고비 150 x 2 = 300.00  
상품 및 비품 500.00  
간식비 400.00  
(바나나, 수박, 햄버거, 핫도그)  
예비비(수영장사용료) 400.00  
계 7,000.00

## 한인회보 안내

한인회보는 교포사회의 매스 미디어로서의 사명을 감당코 교민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호흡하며 반려하는 여러분들의 회보입니다.

교포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소식을 바르게 신속히 전달됨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매스 프로덕션을 이루도록 교민사회의 교각역활을 담당하고 있어오니 많은이용을 바랍니다. 교민각자의 구매활동과 상공회, 교계, 언론기관 각 기관 단체들의 활동상황을 알려주시면 속히 회보에 기재함으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이지역 교민으로써 아직까지 한인회보를 받지 못하신분은 즉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회보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사하신 분은 새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회보 우편종류는 원웨이(One Way) 임으로 새주소를 찾아가지 않으며 주소불명도 본한인회 사무실로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한인회보는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청소년 캠프 일정표

6월 19일(수요일)

- 9:00(오전) - School Bus 로 출발  
11:30-12:00 Camp 도착, 기숙사(숙소)배정  
12:00- 1:00 점심시간(각자준비)  
1:00- 5:00 Classes (게임, 전적지견학, 운동경기각종)  
5:00- 6:30 저녁식사(Camp에서 제공)  
6:30- 7:00 초빙인사 강의  
7:00- 8:00 Crazy Olympics  
8:00- 9:00 Movie (한국에 관한 교육 필름)  
9:00- 9:30 Refreshments  
9:30- 취침(소등)

6월 20일(목)

- 7:00- 9:00 기상, 운동, 세면, 아침식사(제공)  
9:00- 9:30 유명강사 강의(총영사)  
9:30-10:00 운동경기(축구, 농구, 배구)  
10:00-11:00 Send Castle Contest  
11:00-12:00 점심식사(제공)  
12:00- 1:00 Classes (게임, Fort Casey, 운동경기, 수영, Camp Song)  
1:00- 5:00 Dinner (저녁식사Camp Casey 제공)  
6:30- 7:00 유명강사 강의  
7:00- 8:00 장기자랑  
8:00- 9:00 Dance  
9:00- 9:30 휴식 및 세면  
9:30- 취침

6월 21일(금)

- 7:00- 7:30 운동 및 세면  
7:30- 9:00 아침식사 및 숙소정리(청소)  
9:00-10:30 글짓기 평가회  
10:30-11:00 폐회식  
11:00- 집을 향하여 출발

美國 50個州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습니다



南北美 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로고 빠른  
한국일보

282-0022

시애를 85-202

1985. 5. 2.

수신 각 한인회장, 언론기관(중앙, 한국일보, 현대신문, 한미텔레비전방송)
각대학 한인학생회장

제목 재미한인장학금 재단 장학생 선발

'85년도 재미한인장학기금 재단의 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시행
코저하오니 별첨 "재미한인장학기금 안내서" 내용을 참고, 널리 전파하시어
성적이 우수하고 재질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응시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선발일정

-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85. 6. 10.까지
나. 총영사관 예비심사 : '85. 6. 11-6. 20.
다. 주미대사관 중앙심사위 심사 : '85. 7. 1-7. 20.
라. 선발결과 발표 : '85. 7. 30.(예정)
마. 장학금 지급 : '85. 8. 16-9. 15.

2. 지원서류 :

- 가. 지원서(소정양식, 당관보관증) 1부
나. 성적증명서 (최근 1년간) 1부
다. 표준화 시험증명서 각 1부(별첨 "재미한인장학기금"안내 내용참고)
라. 추천서(소속대학교수) 2부
- 각기 다른 교수의 추천서로 장학생지원을 목적으로
1985년에 발행되고 학교공용용지 사용
마. Essay (원서에 부착된 소정양식사용) 1부
바. 입상증명서(예, 체능계 학생에 한함) 1부
- 미술부문은 본인 작품 Slide 10매정도

3. 응시자격

- 가. 미국대학(원)에 재학중인 미국적 또는 영주권소지 한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나. 한국적 소지 유학대학생 및 대학원생(한국 유학생)



다. 한국대학(원)에 재학중인 미국적 또는 영주권소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

4. 장학금 : \$1,000.00

첨부 : 재미한인장학기금 안내서 1부. 끝.

주시애를총영사



한일식품

개업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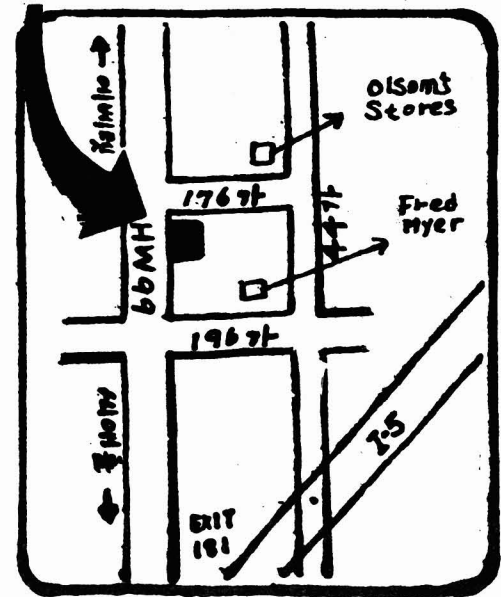
존경하는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노우스 씨애를 지역(린우드)에 한일식품(현대식품분점)을
신설 개업하여 여러분들을 성심 성의껏 모시고져 하오니, 교민여러분
의 지도와 사랑을 부탁 드리며 개업인사를 드립니다.

한일식품 김용세
현대식품 박봉수 배상

- 5월 10일 부터 개업기념 세일시작
개업기념품이 있습니다.

- 취급품목
\* 한국식품일체
\* 신선한 생선 및 고기류
\* 싱싱한 야채류
\* 짭잘한 밀반찬
\* 아름다운 각종 선물류
영업시간 :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밤 10시까지
\* 토요일
오전 9시~밤 12시까지
\* 일요일은 휴업함

17711 Highway 99 Lynnwood
742 2011(가게)
745 3283(집)



### 1985년도 재외교포 학생 단기교육 입학안내

오는 5월 31일로 마감되는 재외교포 학생단기교육 신청이 임박하였다. 본국 정부에서는 교포 학생을 위하여 하계학교를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직적 단기교육을 실시키로 희망학생을 모집하오니 누락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1985년 7월 2일~7월 15일  
자격: 교포, 중·고·대 (5학년~대학생)  
접수처: 씨애틀 총영사관  
(206) 441-1011, 1012)

### 서울 YMCA 해외동포 결혼상담 사업개설

겨레와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절히 대응키 위해 금번 서울Y 해외 동포 결혼 상담센터를 개설 하였으니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문의 사항을 서울종로 2가 9번지 서울YMCA 해외 동포 결혼상담 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시민권 강좌 안내 =

이지역 사회 봉사를 도맡아 수고하시는 전 한인회 이사장이신 김현중 선생님께서는 그간 노인들을 위한 영어 강좌 실시에 이어 교포 시민권 신청자를 위한 무료강좌를 실시중이오니 많이 오셔서 배움으로 명예로운 시민권 취득에 길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오후 7시~8시 30분 (화)  
오후 4시~5시 30분 (일)  
장소: 한인회 사무실

연락처: 김현중 (774-3839, 774-7828)

우리를 대변하는  
한인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 화성군과 킹카운티 자매 군으로

3월 25일 오전 9시에 안세훈 총영사와 오준걸 한인회장 두 분은 King County Executive Office에서 Mr. Randy Ravelle King County Executive를 접견하고, 화성군과 King County 간의 자매군으로 추진중임을 알려음.

### 한국의 날 행사 준비위원 및 추진위원 결정

3월 8일 정기이사 임원 공동회의에서 5월 25일에 진행될 한국의 날 행사를 위한 준비위원으로, 한만섭 오준걸 박태호 신호범 오계희 홍인표 엄도승 김홍식 이동립 이 결정되었으며 후원회로서

씨애틀총영사(안세훈) 평통위원장(강동언) 상공인연합회장(이종찬) 상사지사회장(박정일) 외환은행지점장(오세주) 타코마한인회장(이명규) 타코마부인회장(Mrs. Armstrong) 씨애틀 교회연합회장(정연발) 워싱턴주 태권도회장(이정언) 한글학교장(오계희) 한국학교장(김정태) 한국일보지사장(조병우) 중앙일보지사장(이종완) 등이 4월 22일 한국의 날 행사준비 관계 모임에서 결정되었다.

### 이사임원 공동회의

■ 3월 8일 오후 7시에 한인회관에서 정기 이사 임원회를 갖고 한국의 날 행사계획, Seafair 행사 준비 및 국제 민속 박람회 참가등을 토의하였으며 한국의 날 행사준비 위원과 Seafair 행사준비 위원을 결정하였다.

■ 4월 30일 오후 7시에 한인회관에서 임시 이사임원회를 갖고 한국의 날 행사계획 및 청소년 캠프 준비를 토의 하였다.

**꽃** 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지난 3월 15일까지 대보름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날에 많은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들이 참석하여 가진 이 모임에 우리나라의 고유의 관습과 전통의 의의를 소개했으며 "호도까지" 프로그램과 민속게임은 흥미로웠다. 특별히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Mrs Mullins, 이영희선생, Tradewell 선생, 백경숙 선생께 감사를 드린다.

금번 가족과 함께 보스톤으로 이사하시게 된 최선생님께서 전축한대를 기증하시므로 앞으로 한인학교 행사에 요긴히 쓰여질 것이며 우리 모두 감사의 기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평상시 한국어로 된 책을 읽도록 권장하고 가정독서 프로그램은 많은 부모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서 의욕을 권장하는 일환으로 독서시간을 달력에 기입함으로써 다독자에게 시상도 합니다.

### PSAT 및 SAT 강의

금번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9주간에 걸쳐 PSAT (Preliminary Scholastic Aptitude Test)와 SAT (Scholastic Aptitude Test)수험준비 강의를 갖게 되었사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 PSAT와 SAT는 타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이나 전국 장학생 선발을 원하는 학생들이 꼭 치루어야 하는 시험이오니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장래취학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일자: 1985년 7월 1일~8월 30일 까지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후 6~9시)  
강사: 경험있는 강사(교육구청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사람)

과목: 영어 및 수학  
장소: 한인회관  
대상: 10학년부터 12학년  
수강비: 1인당 \$ 100.00 (매월)

### 시온장로교회 창립예배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 본교회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써 Lake City 지역에 복음사역과 구령의 깃발이 밝게 비쳤다. 그간 뜻있는 교우들의 기도와 열심으로 세워진 시온장로교회는 담임목사로 최영빈 목사님을 청빙 했으며 교회주소는 다음과 같다.

장소: 시온장로교회  
(Our Savior Lutheran Church)  
12509 27th Ave. N. E.  
Seattle, Wa. 98125  
(206) 367-1935, 546-6619

### 필그림장로교회 창립예배

씨애틀 동쪽 Bellevue 지역에 새로 세워진 필그림장로교회는 담임목사로 정용철 목사님을 모심으로 조용한 이 지역 한인교회로서는 처음으로 개척되는 이 지역에 많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되었다.

교회주소: 4010 120th Ave. S. E.  
Bellevue, WA 98006  
(206) 746-4710 : 교회  
882-1995 : 목사관

### 씨애틀 순복음교회 이현규 목사 취임

금번 씨애틀 순복음교회는 이현규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청빙코 3월 24일 오후 7시 위임예배를 드렸다. 이현규 목사님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 선교국장이시며 순복음 미주 연합회 총무를 역임하고 계시다.

### 씨애틀 한인 침례교회 이전

씨애틀 한인 침례교회 (목사 정하경)는 아래 주소로 새로 이전하였기 알려드립니다.

새주소: 1306 N. 165th St.  
Seattle, WA 98133  
(206) 542-4391

### 85년도 한인회비 납부자

최인진 30.00	정운재 20.00
김경완 50.00	김인배 20.00
황보병호 30.00	이광술 20.00
한상준 20.00	무명씨 4.00
김제일 30.00	이성춘 20.00
홍인표 100.00	박봉식 20.00
박창식 100.00	한만섭 50.00
오계희 20.00	박경준 100.00
오상문 20.00	이삼숙 20.00
박상학 20.00	안선균 20.00
한유길 20.00	
조응선 20.00	총 계 \$ 864.00

### 임원 공탁금 납부자

박태호 250.00
Myrna Lee 250.00
오준걸 500.00
계 \$ 1,000.00

### 한국의 날 찬조금 납부자

김의 여행사 150.00
권태원 150.00
아로라선물센터 50.00
한만섭 500.00
김홍식 500.00
홍인표 500.00
이순모 500.00
오계희 500.00
곽종세 500.00
엄도승 200.00
해식 스미스 200.00
신호범 500.00
신동산 150.00
윤광남 500.00
이동립 200.00
박태호 500.00
오준걸 1,000.00

계 \$ 6,600.00

한인회비 납부는 우리의 권익옹호를 위한 기금이다

# 백 소아과

Kiwan Paik, M.D.

(206) 365-4533

진료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5:00  
토요일 10:00-1:00

※ 정문에서 왼쪽 첫번째 단층건물

PAIK'S PEDIATRIC CLINIC  
NORTHWEST PROFESSIONAL CENTER  
1570-115th St #16  
Seattle, WA 98133

### 한인업소

#### 공관 · 언론기관 및 각단체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362-4500
시애틀 총영사관	441-1011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575-1320
동아일보 시애틀지사	244-9930
조선일보 시애틀지사	241-5144
중앙일보 시애틀지사	838-3155
한국일보 시애틀지사	282-0022
코리아저널	547-3729
한국외환은행	622-7821
대한선주	625-1960
한진해운	447-9422

#### 회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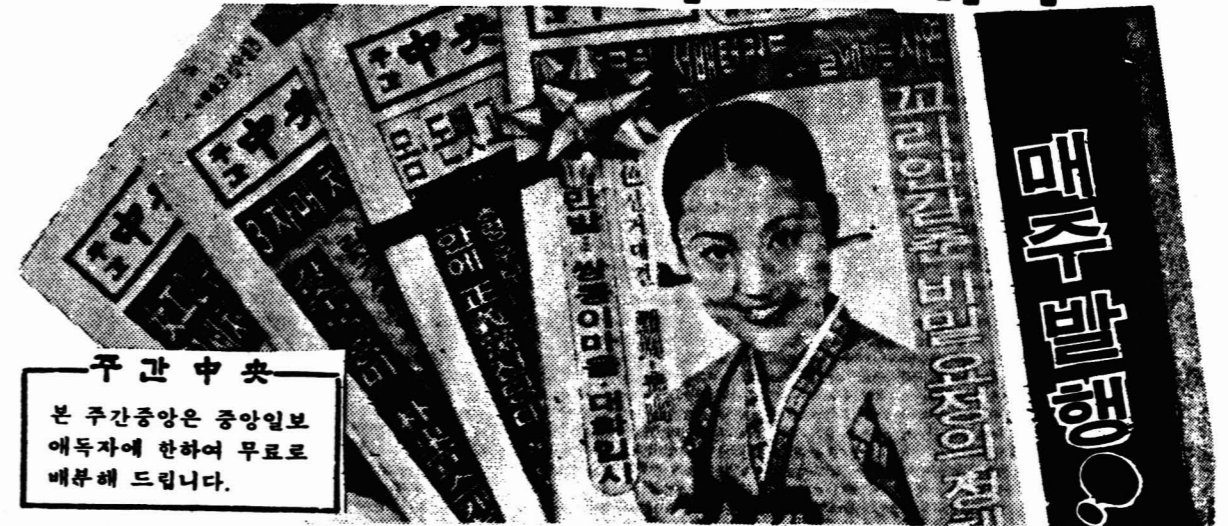
김종구 회계사무소	367-0655
손기남 공인회계사	340-1622
이규영 계리사	623-4181
정태수 공인회계사	762-1038

#### 약국 · 병원 · 한방원

박약국	527-3010
백소아과	365-4533
박창식내과	624-5867
손대관치과	833-3770
이영주치과	775-3456
조병규치과	367-5570
Hoi W. Lee 치과	226-8151
김형기 산부인과	259-7293
로명재 산부인과	833-2580
엄도승 산부인과	872-3400
오덕주 산부인과	848-4453
이창준 산부인과	584-4355
윤안과	778-0333
홍인표 신경전문의	587-5747
무림한의원	747-3677
보혜사 한의원	762-8566
중국 한의원	628-0950
제일 한방원	483-8136

● 고국의 소식과 흥취가 가득 담긴

## 週刊中央 무료배부!!



주간 중앙  
본 주간중앙은 중앙일보  
에독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中央日報

광고 및 구독신청은

시애틀 ☎ (206) 838-3155

타코마 ☎ (206) 927-5915

식당안내	
경동장	625-0356
남대문 반점	248-2250
성일관	367-8837
신라회관	623-9996
영미정	623-3112
용궁	524-5525
한일각	587-0464
청도식당	367-9339
태화각	485-4020
하와이 BBQ	771-6311
Lander's 식당	624-3231
오리엔탈 BBQ	771-3700

보험	
강성국 에퀴터블 보험	838-9218
김덕희 메트로폴리탄	565-0070
김철준 보험	546-6586
김해봉 종합보험	774-8508
류 종합보험	364-2450
박법신 종합보험	455-0650
정문언 종합보험	523-9111
최병택 에퀴터블	838-9218
최영세 에퀴터블	624-8380

여행사 및 선물센터	
김여행사	624-2227
대한 여행사	941-8866
유라시아 여행사	581-0202
장여행사	523-7057
타코마 여행사	582-0303
타코마 한국여행사	588-0333
한국 여행사	623-9290
롯데 백화점	941-8353
오로라 선물센터	362-8617
신신 백화점	582-2975
한국 선물센터	762-5510

사진·인쇄·간판·표구·골동품	
Ko's 사진관 & 비디오	775-0896
하바하바 사진관	475-6226
뉴모드 인쇄소	581-0060
부림 인쇄소	433-8811
쇼어라인 그래픽스	364-6630
Prolitho Inc.	622-7371
Top Print	775-7667
Kim's Art & 간판	474-4998
Park's 간판	762-5410
Bell Town Framing	625-0872
호박 고미술	343-5577

통역 및 변호사	
K.P. 번역원	682-3480
범아대서소	582-2538
방대환 변호사	525-7206
윤영일 변호사	582-7966
브라운 변호사	682-0565
크린톤 변호사	624-6831

식품점	
그랜드식품	525-8334
김치마켓	475-6128
남대문 식품	643-4244
부한식품	588-7300
서울상회	588-9222
중앙식품	762-5620
아줌마식품	941-1123
오대양식품	363-6850
오로라식품	542-6577
장미상회	941-8144
제일식품	774-4103
켄트상회	852-8388
탐스마켓	243-7040
한국식품	682-2992
현대식품	762-4792
Lee's produce	762-5220

부동산	
김병관 부동산	365-4700
김성남 부동산	241-0213
김일영 부동산	874-4452
김준택 부동산	771-4985
김현중 부동산	774-3839
김혜련 부동산	778-2181
노명건 부동산	774-5200
노순열 부동산	622-6385
마가렛 한 부동산	365-5455
변종혜 부동산	223-8949
배기영 부동산	776-4797
수잔 김 부동산	392-8535
Sam 윤 부동산	878-3647
오화실 부동산	455-9571
양구현 부동산	632-6900
이상진 부동산	473-4519
이양남 부동산	363-0443
이종주 부동산	527-0555
이형 부동산	363-8509
이형석 부동산	523-5742
조명철 부동산	623-0966
조인 부동산	364-5966
채태용 부동산	588-4343
황수철 부동산	522-7566

# KRIK-DIAMOND CO.

다이아몬드 판매



※ 품질 보증서 첨부

※ 교포들에게 특별봉사

4th·Pike Bldg. #625  
623-2452

# Mary Kay

화장품

안리나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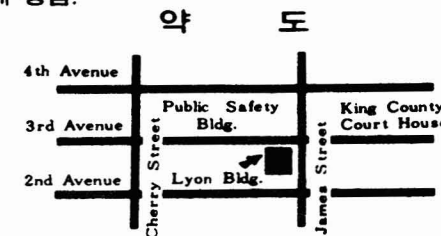
364-7395

밤

546-2904

# K.P. 번역원

- \* 사건조사, 법률처리 알선
- \* 유능한 변호사 알선
- \* 법정·이민국·정부기관·병원 통역
- \* 계약서·보고서·각종 신청서류·책자 고급번역 및 작성
- \* ESCROW 서비스
- \* 이민문제 상담.



Suite 303 Lyon Building Seattle, Washington 98104  
607 Third Avenue (206) 682-3480

\* 저렴한 가격·신선한 식품·친절한 봉사\*

## 그랜드 식품

한국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정육전문 취급점



★ 한국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박악국  
★ 씨애플 최초의 한국서적센터

귀국선물센터 오픈!

8512 20TH AVE. N.E. SEATTLE, WA. 98115

☎ (206) 525-8334

**자동차 판매 및 정비**

김영일	
심재환	363-6110
천정민	632-2400
Ace Auto Body	838-1310
Alki Auto Body	935-9008
Choi's Auto	524-2960
First Auto Repair	762-5844
Kim's Auto	524-6006
Lee's Tire & repair	362-4449
Midway union	878-7500
101 Auto Body	525-5778
Skip's Jody Shop	839-5193
Zion Auto Rebuilder	937-3111

**학원 및 태권도장**

제일음악학원	367-2273
O.K. 운전학교	775-1588
김 참피온 태권도	535-2615
Lee's 태권도	839-0580
Yi Brother 태권도	859-2682
윤 태권도	633-2273

**건축·페인트·정원 및 각종수리**

백광호 건축사무소	467-0900
진흥건설	451-0318
Won Construction	767-9372
송스 건축 & 페인트	525-7680
Park's Painting	762-5410
퀵스랜드스케이핑	821-1960
박정원사	433-0820
김목공소	771-8019
자니전파사	241-5144
쿨러냉동	941-9447
파이프 수리	363-5383
카페트 수리	475-9254

**비디오·당구장·꽃집·미장원·의상**

Apollo 비디오	546-4222
King 비디오	624-9815
한국 비디오	762-5510
서울 당구장	545-9878
승리 당구장	588-0679
한국 당구장	767-3101
세계파아노사	365-5540
성문서적	763-2058
디모인스 꽃집	824-5920
U-Village 꽃집	525-7422
서울 미장원	241-0776
성 미용	259-4724
캐주얼 88	778-1541
한의상실	941-1553
서울 뷰티	241-5403
아모레 화장품	542-7138
플라 화장품	584-2584

※ 한인업소 이용하여 한인사회 발전시킵시다!

\* 잘못된채 되었거나 누락된 업체는 한인회로 연락 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정문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587-5747·3748

LEE S TIRE 및 자동차  
 종합정비 센터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206) 362 - 4449

**편집후기**

소생의 계절이며 격동의 4월은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한의 그림자를 지워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리라.

4월을 보내면서 매 격월로 발행되는 한인회보가 늦어짐을 먼저 교민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사정에 의하여 박법신 편집부장의 사임으로 공석의 공을 메우느라 임원일동이 동분서주 했다. 바쁜시간 조개가며 이렇게나마 편집을 마치게 됨을 다행? 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이번호에 육고를 기고해 주신 박영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알차고 폭 넓은 회보를 위하여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다립니다.

한인회 편집인



**101 자동차 바디숍**

완전무결은 101자동차 바디숍의 최대 목표입니다. 사고 발생시 휘어진 차체를 정확히 바로 잡기 위하여 101 바디숍에서는 최신 장비와 충분한 기술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자동차를 완전하게 고쳐드립니다.



INSURANCE WORK·바디와 페인트·UNIBODY WORK·책임수리  
 10059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Phone: 525-5778(공장), 789-2655(집)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겸양, 숭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취호

한인회보 1985년 제2호  
 발행인 : 오준걸  
 편집인 :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1051 34th Ave. N.E. # 210  
 Seattle, WA 98125  
 P.O. BOX 24992  
 Seattle, WA 98134  
 ☎ (206) 362-4500



# 제일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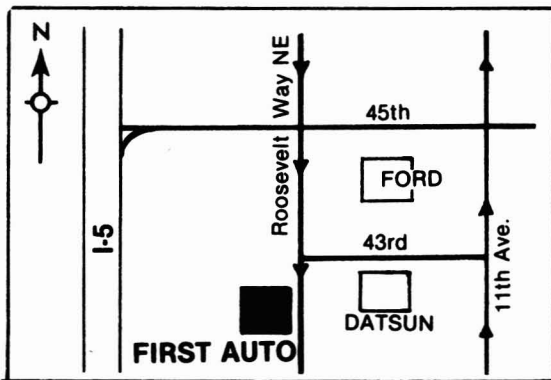
## FIRST AUTO SALES & LEASING

안녕하십니까?

1985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포 여러분께 인사 드리웁니다.

저는 날로 발전해가는 한인 사회를 위하여 University 지역에 새로이 『제일 자동차』를 개업하여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취급하고 보다 좋은 구매 방법과 가격으로 교포 여러분께 공급하고자 하오니 일차 방문하시어 차량 구입에 대한 일을 상담해 주시면 감사 하겠아오며 분명히 만족한 결과를 드리게 될것을 확신 합니다.

천정민 올림



4301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05  
**(206) 632-2400**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To: HA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2940